

국민의당, '수도권 연대' 놓고 내홍 조짐

안철수 "우리 목표는 거대 양당구조 깨기"에 김한길·천정배 "새누리 독주 막아야"

국민의당이 7일 수도권에서의 야권 연대 문제를 놓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마포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무조건 통합"으로 이기지 못한다"며 "(통합은) 이미 익숙한 실패의 길"이라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통합제안을 거부한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대표는 또 수도권에서도 야권이 연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의 목표는 기존의 거대 양당구조를 깨는 일"이라며 "퇴행적인 새누리당에 개헌저지선

이 무너지는 결과를 국민들이 주지 않을 거라 믿는다"고 연대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김한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저는 우리 당이 교섭단체 이상의 의석만 확보한다면 여당이 개헌선을 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야권연대 불가 입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이 180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캐스팅보트를 쥐는 것은 다 무용지물 되고 국회는 식물국회가 될텐데

그때 교섭단체가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라고 새누리당 독주를 막기 위한 국민의당 차원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에 개헌저지선을 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입장에서도 당 입장에서도 그런 대제안"이라고 김 위원장의 발언에 공감을 표시했다.

천 대표는 특히 "국민의당이 실령 80~90석을 가지더라도 (새누리당에) 개헌저지선을 내 주는 것은 그건 나라의 재앙

이라고 더민주와 수도권 연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그러나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김한길 위원장은 야권연대 필요성을 지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지금 새누리당이 이렇게 퇴행적 행태를 보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현명하게 그런일이 안생기게 막아주실 걸로 믿는다"고 야권연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당은 김종인 대표의 야권통합 제안에는 당론으로 공식 거부했지만, 이처럼 수도권 야권연대 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을 표출하면서 내홍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성주기자

하정열 예비후보, 정음-고창 전략공천 확정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예비후보(정음·고창·사진)가 전략공천자로 최종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전국 선거구 중 정음·고창지역구 하정열 예비후보를 비롯해 6곳에 대한 전략공천자와 9곳에 대한 단수후보자를 확정했다.

공천자로 확정된 하정열 예비후보는 "지금의 야당정치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정권을 바꿔라"라는 주민들의 엄청난 주문을 이루기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음·고창 주민 여러분께 승리로 보답해 좋은 정치로서 정치개혁 및 정음·고창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실 하정열 예비후보에 대한 전략공천은 지난달 1일 확정·발표되는 듯이 보였으나 한차례 연기됐다. 30일만에 최종 확정발표됐다.

유성열 의원의 탈당으로 정음지역위원회가 도내 대표적 '사고지역위원회'로 인식돼 총선을 앞배한 전략공천설이 나왔으나 중앙당 내 일각에서 선거구획정과 공천심사위원회가 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자를 발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의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게 됨에 따라 정음·고창지역위원회 의 지역위원장을 겸하게 돼 '사고지역위원회'의 과정을 거치며 흐트러졌던 지역 당조직 또한 수습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민주 정음시·고창군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음 김태욱 고창 한영교)는 하 예비후보에 대한 전략공천이 확정되자 이를 적극 환영한다며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당 하정열 후보의 공천과 지역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매우 기쁜 일로 생각한다"며 "지역위원회가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준 중앙당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우리는 하정열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교체의 초석을 마련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정음=김대환 기자

총선 공천신청 후보자 증가 새누리 도당 '표정관리모드'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이번 총선 공천신청 후보자가 늘어나면서 도당이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7일 도당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가신청을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결과 도내 10개 선거구에 총 14명이 신청했다.

당초 1차 10명보다 4명 늘어났다.

공천신청자 현황을 보면 전주갑은 천상덕·전희재 예비후보, 전주를 정문천 예비후보, 전주병 양현섭·김성진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군산은 채용욱 예비후보, 익산갑 김영일·입석삼 예비후보, 익산을 박종길 예비후보, 남원입실순천 김태규·김용호 예비후보, 정음고창 김성균 예비후보, 김제부안 김효성 예비후보, 완주진안무주 장수 신재봉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했다.

도당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는 이전과 달리 도내 모든 선거구에서 공천 신청 후보자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총선 후보자들, 경선 놓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

일부는 상대 후보 행동에 각세워 신인가산점 적용 등 논쟁 지속

제20대 총선 경쟁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가운데 각 후보들간 경선을 놓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후보들의 경우 서로 인정하면서도 경쟁자인지라 후보 행동하나 하나에 각을 세우는 등 불쾌감도 보이고 있다. 특히 신인가산점 적용, 기성 정치인 전면 배치 등 논쟁 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주갑에 출마한 강동호 예비후보는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정치신인'에 대해서 25% 가산점을 주기로 한데 대해 "지방선거 경험이 있다고 해서 형지 출마자에게 가산점을 안주고 도의회의장을 역임한 후보가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다고 해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정치적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중앙당의 신인가산점 일을 적용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염문상 예비후보(전주을)는 "국민의당은 담대한 변화를 모토로 창당한 신당인 만큼 민심 눈높이에 부응하는 인물로 공천자를 선택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이 초심을 잃고 이번 총선에서 기성 정치인을 전면적으로 내세운다면 중장기적으로 이반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후보는 "민심은 결국 '그 나물의 그밥'이 아닌 혁신을 주도하는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기준을 토대로 육성을 가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자리 잡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명을 요구한 한 예비후보는 임기를 채우지 않고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자들 겨냥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출마한게 아니냐"며 "유권자들이 부여한 의무를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버리는 행위는 이번 경선에서 평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기싸움과 함께 경쟁이 과열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름다운 경선이 아닌 '진흙탕 경선'으로 도민에게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도당 내부적으로 후보들간 대립각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한 정가 관계자는 "경선 일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각 주자간 신경전도 날카로워지는 양상이다. 자칫 후보간 갈등이 시어질 지라도 기대할 수 없고 경선 붕괴에도 크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저 총선 출마합니다

이상직 예비후보, 재선위한 본격 홍보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전주 을 예비후보·사진)가 재선을 향한 본격적인 전 걸음을 나섰다.

이 의원은 7일 오전 효자동 KT사거리에서 출근하는 전주시민들을 향해 첫 거리인사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달 25일 재선 출마를 알리는 기자회견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테라빌딩을 저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에 9일 연속 동참했다.

이 의원은 KTX편을 이용해 국회와 전주를 하루에 2~3회 왕복하는 등 강행군 일정 속에 새벽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며 은수미 의원의 등 무제한 토론에 나선 동료의원들에게 힘을 실어 줬다. 이날 거리인사에 나선 이 의원을 향해 출근길 전주시민들은 경적을 울리거나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면서 반갑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필리버스터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시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다"면서 "4년 만에 거리 인사에 나섰지만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라는 말했다. /신광영 기자



최인규 예비후보 "혁신도시 거버넌스센터 설립"

더불어민주당 최인규 예비후보(전주 을·사진)는 전주혁신도시복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버넌스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지난 2015년부터 전주, 완주, 남원, 정음 등 도내 4개 시군이 '혁신교육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지난해에 도교육청 예산 1억원과 전주 시 예산 1억원이 투입되었다"며 "이 사업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관련 주체들의 인식과 접근방향이 다르다보니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올해부터는 혁신교육특구사업 관련 예산이 증액되어 도교육청과 전주시가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질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교육청-전주시-지역시민사회 사이에 사업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장세환 예비후보 "김종인 오만·무례도 넘었다"

국민의당 장세환 예비후보(전주 을·사진)는 7일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오만과 무례가 도를 넘고 있다며 안철수 공동대표는 물론 국민의당 전 당원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안겨주는 비이성적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가 안 공동대표를 겨냥해 '자재력 상실' '죽어도 못하겠다'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 등등 공당의 대표를 비하하기 위해 저속하고도 감정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제 1야당 대표에 걸맞은 품위와 예의를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장 예비후보는 김 대표의 통합제도의 국민의당 내분을 촉발시켜 국민의당을 무력화시키려는 어비한 전술적 책략이었다며 김 대표가 진정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우려했다면 통합제도를 불속 내맡기 전에 기침 '새누리당 과반수 저지를 위한 야권 지도자 회동'을 제안하는 것이 민주적 지도자로서 정상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김정호 예비후보 "평범한 이웃 행복 위해 일하고파"

국민의당 김정호 예비후보(완주진무장·사진)는 7일 "직장인들과 자영업자, 학부모, 청년, 여성, 이르신들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등 평범한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중앙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1시 후보자 면접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시대와 국민은 야권의 혁신과 정권교체를 위해 능력 있는 준비된 인물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동화로운 민혁명 정신을 계승해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완주군을 인구 15만의 도농복합자족 도시로 건설하고 진안군과 무주군 정수군을 레저 및 휴양도시로 육성하면서 지역에 맞는 농특산물을 브랜드화 시켜 고소득 농촌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신광영 기자



김성주 예비후보 "진짜 정책대결 나서자"

국민의당 김성주 예비후보(전주 병·사진)는 전북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하며, 진정한 정쟁 없는 동정 호소가 아니라 전북 발전을 위한 진정한 정책대결에 나서자며 상대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김성주 후보는 지금 전북이 미래로 나아갈지, 과거에 머물 것인가가 결정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하고 전주를 떠나지 않고 시민과 함께 전북발전을 위해 힘써온 본인이야말로 진짜 전북의 일꾼이며, 전북을 미래로 견인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 후보는 지금까지야말로 전북이 과거의 추억에 머물지 않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전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하고, 출세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진정한 전북발전 위해 제대로 일했던 김성주 후보를 기를 김성주를 전북의 큰 인물로 만들어달라며 시민의 성원을 호소했다. /신광영 기자



양현섭 예비후보, 가정행복만들기 등 공약 발표

새누리당 양현섭 예비후보(전주 병·사진)는 7일 엄마와 아이가 편한 세상 만들기 세부이행공약사항을 발표했다.

양 후보는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안정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약은 양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후 82일 동안 꾸준히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고충과 애원을 몸소 체험하고, 듣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 부분이다.

가정행복만들기는 차매애방 재활센터 건립 등으로 여르신을 위한 공약과 주거급여제도 도입, 대학생 일자리 지원과 학자금 부담 경감 등이다.

복지사회건설은 CCTV사각지대가 없는 실질적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복지예산 확충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이다.

전북행복만들기 100℃는 전주월드컵경기장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가족휴양단지 조성 등이다. /신광영 기자



유희태 예비후보, 새희망 365 약속 정책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유희태 예비후보(완주무주진장·사진)는 7일 '유희태의 새희망 365 약속'이라는 제목의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유희태는 "새희망 3·6·5 약속"은 3대목표, 6개 핵심정책, 5개 지역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이중 5개 지역약속은 제육 찾는 전북, 15만 명품도시 완주(쌀)살자, 홍삼·한방의 중심 진안, 대한민국 관광중심·태권도특구 무주, 말산업과 레드푸드 중심 정수로 나누어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3대목표를 정권교체를 반드시 달성하고 제육 찾는 전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구인 완주와 진무장을 잘사는 도시, 부지농촌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6개 핵심정책으로는 ▲장사는 농촌을 위한 관료법 제·개정 ▲한국의 청정 중심지 동부권 웰빙화 ▲완주와 진무장을 한데 묶는 한지붕 4형제 프로그램 운영 ▲힐링과 웰빙을 접목한 동부권 힐링스테이 관광문화권 조성 ▲전북 바로서기 ▲민주정권 수립 잘사는 나라 등을 담고 있다. /신광영 기자



무소속 진정희 의원, 국민의당 입당 결정

전정희 의원(익산 을·사진)은 7일 국민의당으로 전격 입당을 결정했다.

진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인기 동안 부끄러워 않게 시민과 소통하면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하며 '뉘를소버지연명 등 270개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으로부터 2번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현직대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제19대 국회의원 평가결과 상위 18%에 포함되어 총리현직대상을 수상하고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진 의원은 "이러한 의정활동을 해 온 저에게 더불어민주당은 발전시켜 전북 익산(을) 지역을 전략공천지역으로 결정해서 공천에서 배제시키라는 통보를 했고" "이산은 왜 누구 인사를 낙하산 공천한다고 유권자들이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것이며 현역 의원인 저와 익산시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저는 오래 고민 끝에 익산시민들께서 요구하고, 익산시민들이 원하는 국민의당의 뜻을 입고 국민의당과 함께 익산시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다시 찾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익산=김영원 기자

